

유행 정점 진입...“감소세 전환 불확실”

“인구 20% 감염, 유행 추이 절대적 선 아냐”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 정점·감소에 영향”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 60만 명을 돌파한 뒤 감소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유행 정점 구간에 진입했지만,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매주 크게 증가하던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고 정체되고 있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유행의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급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

력이 50~60%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는 스텔스 오미크론 점유율이 함께 올라가고 있어 이런 부분이 향후 유행 정점이나 감소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주 국내 감염 중 41.4%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993만6540명으로, 오늘 중 1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준이다.

영국 등 앞서 오미크론 유행을 겪은 해외 국가에서는 국민의 20% 이상이



감염되면 확산세가 꺾이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20%라는 게 절대적인 선은 아니다”라며 “보통 각국의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확보가 어

는 정도 형성돼 있고, 현재 방역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점 시기는 다양하다”고 답했다.

김재환기자



늘어나는 스텔스 오미크론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국내 검출률이 최근 4주 새 41.4%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고령층에 집중”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고령층에 집중 투입해 요양병원·시설 내 확진자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가 최대한 고령층에 집중되도록 우선순위를 개선하는 중”이라며 “요양병원·시설 확진자에 대해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한 고령층,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사망자 1835명 중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서 사망한 확진자가 35.3%인 647명이다.

손 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는 다각적인 복합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며 “먹는 치료제 처방을 최대한 빨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해서 요양병원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의료진이 없는 요양시설에서는 환자 증상 여부와 관계 없이 중등증 증상 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진이 원격진료로 최대한 먹는 치료제가 빨리 투입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증자와 입소자에 대해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며 “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의 접촉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도 지속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효율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다른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했다. 나이와 검체채취일 기준 20일이 지난 중증병상 환자에 대한 전원명령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격리해제자에 대한 전원명령을 주 2회로 늘린 상태다. 음압병상 등 코로나19 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일반병상으로 옮겨진 확진자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원래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게 대원칙”이라며 “다만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시설 치료에 필요한 경우 전액 국가에서 계속 지원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중증환자를 표본조사해보면 호흡기계 중증환자는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되고 기저질환 증상 악화로 중증도를 가진 환자가 대략 4분의 3”이라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강진경찰, 학교폭력·교통안전 예방 캠페인 실시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신학기를 맞아 16일과 17일 양일간 각각 강진중앙초와 강진여중, 강진고 앞에서 등교시간에 맞춰 학교폭력·교통안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나주경찰-NH농협은행, 안전한 나주 만들기 위한 협의 추진

나주경찰서장(총경 김선우)은 NH농협은행 시지부(지부장 권용대)과 함께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동취재본부



보성경찰, 보성농협과 ‘안전한 보성만들기’ 간담회 개최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보성농협 회의실에서 오임관 경찰서장, 박도재 농협 보성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조합장 등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보성만들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순천경찰, ‘안전한 순천 만들기’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설명회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는 최근 순천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24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순천 만들기’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이란 주제로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를 실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주동부소방, 골든타임 확보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재난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도착과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남구119안전교육센터, ‘일반인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교육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 남구119안전교육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 전라계주지역본부 소속 안전관리담당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최이슬기자

델타→오미크론→스텔스...대유행 더 오나

주간 검출률 26.3%→41.4% 경증 독일·영국 등 유행 다시 증가세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인구의 20%에 달하는 1000만명에 육박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5만3980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993만6540명으로 이날 중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전 국민의 20%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기존 높은 점증률을 통한 방어 효과에 감염 후 완치로 자연 면역 형성도 높아졌지만 유행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 주 국내 감염 중 41.4%를 차지했다.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의 검출률은 한 달 전인 2월 4주만 해도 10.3%에 그쳤으나 3월 1주 22.9%, 3월 2주 26.3%, 3월 3주 41.4%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미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3월 3주에 56.9%로 절반을 넘겼다.

미국 백악관 보건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

구소 소장에 따르면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50~60% 더 높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가 종전 유행을 이끌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약 2배 높고, 델타 변이 역시 그 이전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위협적인 수준이다.

당국은 일단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현재의 유행 정점이 길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 변이를 통해 새로운 유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BA.2로 인해) 어느 정도 전파력이 높아질 수 있고, (유행)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유행이 지난 다음 BA.2로 인한 재유행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현재 계속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점유율이 변경되면서 유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5만3980명으로 지난 19일부터 나흘 연속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적 모임과 다중시설 영업 시간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단 이미 오미크론의 유행을 겪었던 유럽 등 해외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한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올해 10주차에 신규 확진자 수가 43만5238명으로, 직전 주 대비 57.2%나 급증했다.

프랑스 역시 전주 대비 20.7%가 증가한 41만96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독일의 경우 역대 주간 최대 발생인 135만362명의 확진자가 집계됐다.

아직 국내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41%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세는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의 사례만 봐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에도 6개월마다 새 변이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지금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도 또 다른 유행이 발생할 수 있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진기자